

불의에서 떠나 참 십 얻기

디모데후서 2:15-23, 마태11:28-30

<공동번역>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느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속되고 헛된 말은 피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암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히메나오와 필레도가 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들어대면서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놓아주신 기초는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하는 말씀과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가거라."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또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 있는 그릇으로 바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그대는 청춘의 욕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힘써 구하십시오.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을 피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그것은 싸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주 안에서 동지요 자매, 형제인 주민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모두 아파하고 있는 이때 변함없는 주를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별다른 경험이며, 이렇게라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ppt/그림 태국, 방콕/ 내 사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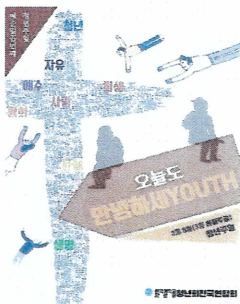
3,720 km

서울특별시에서 방콕까지의 거리



저는 대한민국에서 약 37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살아가는 선교사 명승인목사입니다. 작년 8월까지 27년간의 교회현장 목회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제2의 목회여정으로 제3세계 선교사역을 꿈꾸며 아직 선교사라는 호칭이 낯선 초보 선교사입니다. 현재 방콕에서 어학 훈련에 매진하며 열심히 태국어를 익히며, 또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동시에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ppt/그림 청년주일 포스터>



오늘은 3월 둘째 주일 우리 교단이 제정하여 매년 지키는 예수 일곱 번째 (67) 맞이하는 청년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자들이 청년들로 구성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오전예배를 청년들이 순서를 맡아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주민교회이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무적이며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기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청년’ 이 누구일까요?

<ppt/ 청년 정의> 청년(靑年)

우선,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전적 의미로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20대 정도의 나이대에 속하는 남성, 여성을 가리키며 흔히 청춘세대라고도 합니다.

청년의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통계청은 14세~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법은 18~24세 남녀 모두로 대상을 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은 19세~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2013년 출범한 청년위원회는 20세~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ppt/ 온라인청년센터>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는 ‘온라인청년센터’ 를 예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기도청 홍보차 온 사람은 아닙니다.> 3번째 공지를 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요.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보면, 만18세~34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35세가 되신 분 계신가요?) 안타깝습니다. 해당사항에서 제외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목적과 운용방침에 따라 청년의 나이가 제각기 다릅니다. 20~3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 곳과 14~29살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 곳, 18~34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 등 일정하지 않습니다.

<ppt/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청년세대’

성서를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구약 72회, 신약 15회 총 87회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특정 나이를 말하기보다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 그리고 기력이 쇠한 노인과 대별되는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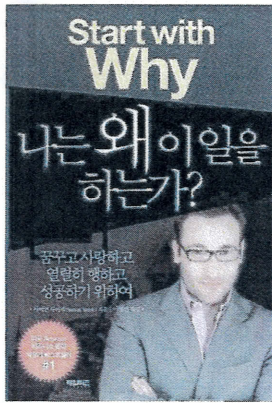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순서를 맡아 주관하는 20, 30대 청년들만 청년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하늘의 뜻을 따라,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이 시대의 ‘청년’ 인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렇듯 ‘청년’ 이라는 말은 정체되고 변화 없이 시들어져가는 시대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불러 일으키는 대안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100여년 전 암울했던 일제의 강점기에 독립과 해방의 불쏘시개가 되었던 ‘청년’ 을 시작으로, 이후 위기와 아픔의 역사 현장마다 ‘청년’ 들은 사회와 민족의 희망과 대안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청년을 규정짓는 말들을 보면 무겁고, 어둡고, 녹록한 슬픔의 냄새들이 납니다. 88세대, 삼포세대, 청년 부채, 등등

‘왜’ 푸르디 푸른 세대인 청년에게 이런 수식어들이 붙게 되었을까요?

<ppt/사이먼의 주장>



마이크로소프트, MARS, SAP, 인텔, 미 의회 등 ‘왜’의 가치를 믿는 다양한 기업과 정부기관, 기업가들의 워크숍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리더십전문가가 있습니다.

<PPT/ '밀레니얼: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

그는 “밀레니얼 세대¹⁾의 청년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닌 현 시대의 잘못된 환경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정의하며 그 잘못된 환경으로 4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교육 <PPT>

현 세대의 청년들은 실패한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지위, 영향력, 배경에 의해 교육을 받다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비로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그저 운이 나빴던 것입니다.”

둘째, 과학기술 <PPT>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하여 SNS를 하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화합물이 배출됩니다. 도파민은 쾌락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그래서 SNS에 댓글이 달리거나 ‘좋아요’가 늘어날 때, 그리고 ‘카톡’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중독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지요. <ppt/중독된 뇌>

마약이나 술, 도박 등을 할때에도 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SNS 중독과 마약중독은 같은 뇌부위의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같은 또래집단과 사회적으로 어울리며 몸으로 체득해 가며 성장해야 하는 이 시기에 그런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홀로 단절된 공간에서 SNS에 몰두합니다. 사람이 관계형성과 공동체성을 익히는 것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관계성은 끈끈하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SNS를 통한 관계형성은 그렇지 못하지요. 일시적이며 즉흥적인 것들만 찾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조금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여러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해? 뭐해? 뭐해?...”

셋째, 조바심 <PPT>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간에 신뢰를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두달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에 대한 만족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의 청년들은 이런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에 어려워하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느낍니다. 초스피드, 직관적이며 즉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이면 다음 날 문앞에 도착합니다. 보고 싶은 프로

1)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

그램이나 장면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소위 팔로 언젠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인간 관계를 쉽게 늘리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만족감을 초스피드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평화, 정(情), 전문성, 신뢰 같은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대박’ 만을 찾아다니는 세대는 쉽게 추락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환경 <PPT>

기성세대는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더 많이, 더 크게 요구하며 그런 환경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삶보다 단기적인 수익에 올인 하는 사회적 환경들입니다. 이것은 그런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숫자보다 자신감과 긍정의 마인드를, 즉흥적 초스피드 보다 열정과 이상을 꿈꾸며 공동체성의 중요함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요구됩니다.

굳이 사이먼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짐작하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많은 환경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권면하시는 성서의 교훈에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두 본문 중 바울의 서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해설> ppt/바울 모습



많은 경전의 바울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1:1).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교리를 전하기 위해 아프리카(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당시 로마 제국이 점령한 주요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대략 2만km가 넘는 거리를 걸거나 배를 타고 돌아다니던 그의 선교 여행과, 신약성서 27개의 문서 가운데 13편에 달하는 서신서들은 교회사를 통틀어 놀라운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t/바울의 선교여행>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다섯 번 매를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되는 위기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주후 67년 이른 가을이나 68년 봄 쯤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쓰던 상황은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힌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고(딤후 4:6; 빌 1:25) 그의 주위에는 동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딤후 4:10-11; 골 4:10, 14).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후 로마 황제 네로가 죽기 전 즉 주후 68년 6월 이전에 사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죽기 바로 전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전체를 모두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은 짧은 본문만 보더라도 “힘쓰라! 피하고 따르라!” 와 같은 강한 어조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절박한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불의에서 떠나라’ <PPT>

디모데후서 본문은 ‘불의에서 떠나라’ 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전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암울하고 비상식적인 상황들을 바꿀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쉬운 비유로 설명하듯이 주인이 쓰기에 알맞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별된 귀한 그릇이지요. 그런데 간혹 20절 말씀만 딱 떼어서 ‘우리는 금 그릇이나 은 그릇 처럼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고만 설교하며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귀한 그릇’ 에 온갖 초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보기 좋은 사람들의 가치 기준의 귀한 그릇 말입니다.

<PPT/귀한 그릇이 되라!>

제가 목회하던 군산에는 가끔 동네 곳곳에 현수막이 하나씩 걸립니다. 그것은 누구 누구씨의 자식이 무슨 무슨 고시에 합격했다라는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건물에도 이러한 현수막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시나 고시합격이 대단하긴 하지요. 물론 축하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현수막을 보고 난 뒷맛이 조금 씁쓸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어쩌면 그 교회에서는 고시에 합격한 청년을 상대적으로 ‘귀한 그릇’ 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보통은 ‘야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귀한 그릇이 되어야지!’ 라며 함께 기뻐하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학력, 경제력 차이에서 생기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오는 분노, 좌절, 우울, 자살 등 사회적 문제들이 세분화되고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귀한 그릇 신드롬은 이런 사회적 기준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순간이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는, 믿음의 생활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의 교훈은 그러한 의미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즉,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와 명예를 쌓고 또 쌓아서 ‘귀한 그릇’ 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학업이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PPT/ 귀한 그릇 - 주인이 바라는 쓰임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릇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귀한 그릇이란, 주인이 쓰기에 알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 그릇이나 은그릇이 되어야 귀한 그릇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습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으로 되어있든 상관없이 단지 주인의 쓰임새에 알맞아야 그것이 귀한 그릇, 성별된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21절- “If a man cleanses himself from the latter, he will be an instrument for noble purposes, made holy, useful to the Master and prepared to do any good work.”

다시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ppt/22절 말씀>

22절 말씀- “그대는 청년의 욕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힘써 구하십시오.” (Flee the evil desires of youth, and pursue righteousness, faith, love and peace, along with those who call on the Lord out of a pure heart.)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옥같은 교훈들을 산상수훈(마5,6,7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 교훈이 나오는데 그 중 네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ppt> “복이 있도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여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마5:6)

이 말씀은 ‘이미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는 표현이 아니라 ‘의로워지려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는 것입니다. 즉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 목마른 사람이 한 모금의 물을 찾듯이 그러한 절실한 마음으로 의로워지려는 마음을 품고만 있어도 그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별로 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민교회 교우여러분!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별로 의롭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의로워지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ppt/ δικαιοσύνη, dikaiosuné, justice, 義>

헬라이어 성경에 원어(디카이오쉬네)로 의롭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조금 다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갖는다' 는 뜻입니다. 성서의 예들을 보면, 돌아온 탕자, 세리 삭개오의 고백(의롭지 않게 갈취한 것을 회개하고 죄를 고백, 눅19장) 등 대표적인 예입니다.

청년 여러분! 불의에서 떠나기 위해~ 의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상태이든 절망, 좌절, 포기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더불어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힘써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불의에서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복음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진정한 쉼, 안식이 그것입니다.

- 참 쉼으로의 초대 <ppt>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쉬고 있는데요, 그런 쉼은 진정한 쉼이 아니지요. 불안하고 불편한 쉼입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쉼은 내가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 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 쉼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걱정과 근심, 질병과 고통은 인간의 방법으로 쉽게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어려운 인생의 짐을 인간의 노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찾아오는 죽음의 허무하고 두려운 짐이 인간의 노력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참 안식을 만드시고, 참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신성한 노동은 하나님의 형벌로 전락하고 맙니다.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 것이다!” 이 형벌을 짊어지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지요.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의 신성한 노동이 저주받은 땅에서의 피로운 노동으로 전락했습니다. 즐거웠던 노동이, 실낙원 후에는 단지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죽도록 일만 하다가 영원히 죽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월요병’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일 저녁이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내일 가기 싫다!” 이 월요병 증상이 왜 나타날까요? 보통 현대인의 삶을 보면 특별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지요. 왜 일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월요병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pp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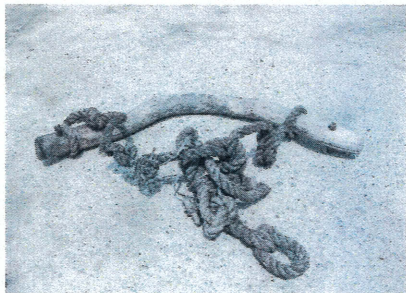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30절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 피로운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짐들을 묶어 우리 등에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마23:4) 삶의 무게로 우리의 굽은 등에 있는 짐들을 내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참 쉼으로 초청하시는데 그 쉼은 우리가 주님

과 멩에를 함께 메고 협력관계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이 하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이지요. ‘내게로 오라’ 는 초청은 ‘나의 멩에를 메라’ 는 멩령을 동반합니다(28-29절).

<ppt/ 멩에>



멩에는 한 쌍인 소의 어깨를 가로지르게 놓여 그들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함께 끌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들어 목에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종교적인 습관, 율법과 인간 사회의 불의, 억압에서의 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통 세상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TV, 인터넷, 술, 도피적 여행, 음란물, 또는 인생의 고통을 무디게 하는 다른 많은 것들에서 쉼을 얻으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멘 멩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만을 줄 뿐이며, 결국에는 텅 빈 감정만을 남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멩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고 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에게 멩에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된 모습에서 변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멩에가 괴로운 것입니다.

<ppt/ 예수 그리스도의 멩에>

예수님이 멩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그분의 멩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멩에를 메십니다. 작고 연약한 소가 거대하고 힘 좋은 소와 함께 멩에를 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대부분의 무게를 지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나의 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권하십니다. 우리는 숙련자가 어떻게 멩에를 메는지 관찰하고 그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꺼이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멩령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멩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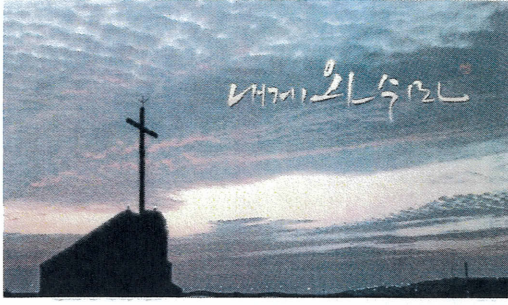
<ppt/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무관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계획과 계산만을 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한 내 경험, 내 지식, 내 편의, 내 이익 등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변명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역지를 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탈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하시며 우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고 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살아가신 방법을 배우는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ppt/ 십자가, 주님의 멩에 그리고 나의 멩에>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 멍에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을 버리고 살지 말고, 그 짐을 잘 지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자신의 삶과 이 세

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교만과 착각에서 벗어나 순전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진정 삶의 기쁨과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영원한 청년 예수를 만나고 따르며 참 쉼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